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은정* · 김병년**

초 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 학업 중단 이후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중독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 2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스마트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를 높이고, 높아진 진로장애는 다시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개인적 요소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 낙인감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매개효과를 보이는 진로장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규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들의 경험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사회적 낙인감, 진로장애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sw-eunjung@hanmail.net

**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겸임교수, 교신저자, byoung99@kookmin.ac.kr

I. 서 론

학교 밖 청소년¹⁾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연평균 5만 명 내외의 초·중·고등학생이 개인, 가족, 학교 내 관계 또는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교육부, 2020). 이들은 학업을 지속하는 것에 양가감정을 느끼기도 하고(이주연, 정제영, 2015), 스스로 진로를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명소연, 조진옥, 2016; 박병금, 노필순, 2016). 그러나 이후의 진로 경로는 단일한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특별한 진로를 찾지 못하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학업을 지속하거나,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이처럼 ‘학업 중단’은 현상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용어(백혜정, 송미경, 2015)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비행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시선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박병금, 노필순, 2016; 최지연, 김현철, 2016).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4명(39.5%, 복수응답)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를 학교를 그만둔 뒤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이러한 사회적 낙인감(social stigma)의 영향력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크게 나타난다(김광혁, 2017).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김민선, 2019)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높이는 등(박동진, 이지연, 2020)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야기한다. 또한 외부 활동을 꺼리게 되어 사회적 관계를 줄이거나(최지연, 김현철, 2016),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직과정이나 취업 후 부당한 처우를 겪고(박병금, 노필순, 2016; 최지연, 김현철, 2016), 노동현장에서 부적응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사회적 낙인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 문제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게임중독보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또 하루 중 스마트폰이나 휴대

1)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학교’ 중단하였지만,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이다.

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철경 외, 2018). 선행연구는 부정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선과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적 사용을 초래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김소현, 2010;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박봉선, 2019; 임진숙, 강성국, 김성식, 2005; 한상규, 2019).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낙인감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감은 스스로에게 내면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중에게 공유되는 부분으로 개인의 변화만으로는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요인이 확인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에 유용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이상균,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실질적인 미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의 진로활동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애(career barrier)’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진로활동은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자원을 상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는 편견이나 무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선 자체가 진로장애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최인재 외, 2015; 황선미, 신현숙, 2007).

아울러 진로장애 경험은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다(홍혜영, 안혜선, 2009). 특히 진로장애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율이 높게 나타난다(이신애, 조명선, 2019). 반면,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태도를 갖추거나 진로 결정 수준 또는 진로포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정미, 김여정, 천성문, 2017; 임은미, 2003).

이러한 논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를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진로장애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근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황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하게 콘텐츠 소비, 미디어 시청, 게임, 학업 등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성윤숙, 2016). 또한 공식적인 학업 과정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온라인 매체는 진로관련 정보 습득 등 진로활동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노지혜, 문성호, 2019). 그러나 스마트폰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외에도 정보교환, 게임 등이 가능한 복합 매체로, 개인이 소유하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어떤 정보든 원할 때 얻을 수 있다는 특성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넘어서는 중독이 강한 매체(김병년, 2013; 이창호, 김경희, 2013)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모든 연령 중 청소년(만 10-19세)이 가장 높고 과의존군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점수가 높고,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한 일은 SNS, 메신저, 게임 등 스마트폰 사용이 60.8%로 2015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윤철경 외, 2018; 최인재 외, 2015) 스마트폰 사용 빈도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경우 적정시간 이용이 어려운 ‘조절실패’가 주된 어려움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은 정규 학업 중단 이후 이행 경로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학업형’과 ‘직업형’은 계획한 일을 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장에 정도가 높고, ‘직업형’은 가상세계 지향성과 스마트폰 없는 상황을 견디기 힘든 금단 증상이, ‘무업형’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줄이기 어려운 내성이 높다(윤철경 외, 2016). 또한 ‘직업형’의 경우, 이동하거나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스마트폰이 분리되지 않으며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성윤숙, 2016). 이는 학업 중단 이후의 진로 방향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과 의존 경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기 발달 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다(김병년, 2018). 스마트폰 중독은 자아존중

감을 낮추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임미림, 2014). 또한 사이버불링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비행이나 범죄 같은 문제행동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신동엽, 2013;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나아가 가상세계의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세계로 이어져 오프라인 상에서 비행을 증가시키기도 한다(조준범, 2017).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하루를 보내거나, 향후 진로 계획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울, 불안, 무기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윤철경 외, 2018).

부모와의 접촉 시간이 적은 청소년기 특성상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통제가 어렵고, 최근 전염성 질환으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비대면 학습 증가 경향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높일 수 있다. 정규학업 중단 이후 학업 지속, 사회진출 준비 등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경우 식생활, 수면습관 등 생활이 불규칙할 가능성이 높다(윤철경 외, 2016; 최지연, 김현철, 2016). 실제 학교를 그만 둔 후 10명 중 3명은 친구 집이나 PC방 등이 주된 생활 장소라는 점(최인재 외, 2015) 또한 일상 속 스마트폰의 적절한 사용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 실제로 혼자 살거나, 부모가 맞벌이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인재 외, 2015).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 스마트폰 등 인터넷 중독 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다(윤철경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적인 교육과정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이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문제의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낙인(stigma)²⁾은 사회적으로 소수인 약자나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집단에 대하여 인지적 요소인 고정관념, 정서적 요소인 편견, 행동적 요소인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작동하는 개념(Penn & Martin, 1998, 김광혁, 2017에서 재인용)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현상으로 역동적인 특성을 가진다(이인옥, 이은옥, 2006).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대적인 소수 집단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낙인은 홀로 작동하지 않는다. ‘낙인찍는 사람’과 ‘낙인찍힌 사람’의 차원과 ‘공공의 낙인(public stigma)’과 ‘자기 낙인(self stigma)’으로 구분된다. 집단에 내재된 ‘공공의 낙인’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인식을 정형화하고 편견에 근거한 부정적 평가, 차별, 배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한다(Corrigan, 2004; Kuzban & Leary, 2001). ‘자기 낙인’은 고정관념을 내면화함으로써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Vogel, Wade & Hacker, 2007)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수치심을 느낌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자존감, 학업 성취, 건강, 고립, 낮은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인옥, 이은옥, 2006; Major & O'Brien, 2005).

특히 자아를 형성하는 청소년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배제와 차별의 경험은 낙인을 내재화하게 함으로써 어려움을 야기한다. 학교를 중단하는 사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고정관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편견,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 차별과 무시, 배제 경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철경 외, 2018). 이들은 학생 신분이 아니거나 학력 제한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이나 취업한 이후에도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병금, 노필순, 2016; 최지연, 김현철, 2016). 이러한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고(김민선, 2019; 이주연, 정제영, 2015),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김민선,

2) 낙인(stigma)은 “사회적으로 신임을 잃게 되는 속성, 행동, 평판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게 거부, 구분되는 것”으로 정의된다(Goffman, E., 1963). 세계보건기구(WHO, 2001)는 낙인을 “수치심(shame), 망신(disgrace), 못마땅함(disapproval)의 표시로 개인이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차별받고,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수집단,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게 하는 인권 문제라고 보고 있다.

2019),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높여(박동진, 이지연, 2020), 진로 장애를 크게 느끼게 하는(박동진, 이지연, 2020; 박지원, 문성호, 2020; 황선미, 신현숙, 2007) 등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화명과 김영미(2017)는 심리,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자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주변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낙인은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기 개념의 명확성을 낮추고,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부정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선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소현, 2010; 박봉선, 2019). 스트레스 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어려운 현실과 부정적인 정서에서 회피하기 위해 특정 매체의 사용에 몰입하게 되면 비행과 같은 다른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중독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박경애 외, 2009; 임진숙 외, 2005; 장정임, 김성봉, 2015; 한상규, 2019). 문진영, 박주원과 김옥희(2020)에 따르면 게임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게임 중독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이 밝혀진 바 있다.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감이 인터넷, 게임 중독이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청소년들이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을 여가활동으로 선호하며 많이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는 복합매체로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와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우울, 진로장애 등 부정적 정서와 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을 높일 수 있음(이신애, 조명선, 2019)을 고려할 때 이를 야기하는 선행요인으로 사회적 낙인감의 영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사회적 낙인감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적응의 산물로서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로 탐색과 준비, 진로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Super, Savicki & Super, 1996)이다. 이러한 진로 관련 경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 선택, 목표, 동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부정적인 사건은 진로장애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손은령, 2001).

이는 발달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며,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그러한 사실과 상황을 지각하는 주관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복순, 2011).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진로 활동 공간인 ‘학교’를 떠나서 사회에 정착하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면서 정보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철경 외, 2018). 또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 가정일수록, 정규학업 중단 이전의 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집단일수록 진로장애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금옥, 2002).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진로장애를 야기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사회적 낙인에 주목하고 있다. 김민선(2019)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진로장애와 진로낙관성이 부분 매개함을 밝혔다. 특히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높아진 진로장애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진과 이지영(2020)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를 유의미하게 높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과 문성호(2020)도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장애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낙인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진로장애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며, 높은 진로장애는 이후의 진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진로장애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면서 개인 내적인 요인도 포함하지만, ‘진로 정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상황적인 개입을 통하여 변화가 가능한 개인 외적인 요인을 포함(손은령, 2001)하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주목하는 이유이다.

4.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

청소년기 특정 매체에 대한 중독 관련 연구들은 중독 문제가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주요 과업으로 여겨지는 진로와 관련된 요인은 중독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재숙(2011)은 농어촌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위기는 인터넷 사용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요인이며, 우울과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를 매개하는 간접 효과가 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손정순과 김봉환(2009)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고위험 청소년들은 진로 태도가 미성숙하여 진로에 대한 확신, 결정, 목적의식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임은미(2003)는 진로에 대한 계획, 자기 이해, 구체적인 직업 태도를 갖추고 있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주로 차별받는 소수집단의 진로발달에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진로장애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신애와 조명선(2019)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과 진로장애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바 있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도 진로장애의 하부요인인 진로불안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정미 외(2017)는 진로포부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장애를 낮추는 것이 스마트폰 중독의 보호요인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진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게임, 영상청취, 가상공간 등에 몰입하는 것이 중독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박재숙, 2011; 이신애, 조명선, 2019; London, 1997).

학업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28.0%)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의 어려움’을, 10명 중 2명(18.1%)은 ‘일 구하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8). 물론 학업 중단 이후에도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등 다양한 진로 경로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업 중단 이후 뚜렷한 목표 의식이 없이는 의미있는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최지연, 김현철, 2016).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학업 중단이라는 경험 자체가 진로장애가 될 수 있으며, 진로 성숙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다(송병국, 전주연, 2013; 노지혜, 문성호, 2020) 스마트폰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를 높이는 선행요인이라는 점(김민선, 2019; 박지원, 문성호, 2020)을 고려할 때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입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애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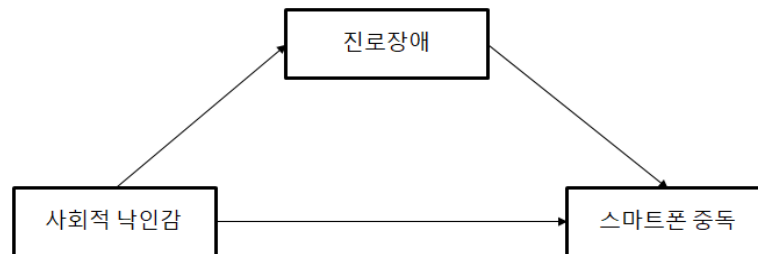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중 패널의 안정성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2차 년도(2014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599명이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145명을 제외하고,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454명의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사회적 낙인감

사회적 낙인감은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낙인화 척도)의 축약

버전을 주금옥(2002)이 번안한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소외를 측정하는 문항과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범주는 4점 Likert 척도이며, 분석을 위해 역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신뢰도 계수는 .819이다.

2)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척도(이창호, 김경희, 2013)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척도 15문항 중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분석을 위해 역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신뢰도 계수는 .792로 나타났다.

3) 진로장애

진로장애척도는 김은영(2001)이 Swanson 등(1991, 1995, 1996)의 진로장애 검사(Career Barrier Inventory: CBI)를 기초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주금옥(2002)이 청소년용으로 수정, 개발한 척도이다. 이는 진로를 계획,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업 중단 청소년의 진로 장애 측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진로정보 부족’, ‘미래 불안’,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 13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된 척도(배주미 외, 2010)가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응답의 범주는 4점 Likert 척도이며, 해석을 위해 역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애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신뢰도 계수는 .863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SPSS Process Macro 및 AMOS 20.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사회적 낙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AMOS 20.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으로서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입증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은 Sobel-test와 SPSS Process Macro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179명(39.4%), ‘남성’이 275명(60.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세’ 192명(42.3%), ‘20세’ 115명(25.3%), ‘18세’ 101명(22.2%), ‘17세’ 20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가정 경제상태의 경우 ‘보통 수준(④)’이 177명(39.0%)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수준보다 낮은(③)’경우가 103명(22.7%),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⑤)’경우가 68명(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의 경우 ‘건강한 편이다’ 274명(60.4%), ‘건강하지 못하다’ 92명(20.3%), ‘매우 건강하다’ 76명(16.7%),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12명(2.6%)의 순이었다.

표 1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179	39.4
	남성	275	60.6
연령	15세	4	.9
	16세	13	2.9
	17세	20	4.4
	18세	101	22.2
	19세	192	42.3
	20세	115	25.3
	21세	9	2.0
주관적 가정 경제상태	①매우 못 산다	19	4.2
	②	65	14.3
	③	103	22.7
	④보통 수준	177	39.0
	⑤	68	15.0
	⑥	19	4.2
	⑦매우 잘 산다	3	0.7
주관적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12	2.6
	건강하지 못하다	92	20.3
	건강한 편이다	274	60.4
	매우 건강하다	76	16.7
전체		454	100.0

2. 주요변수 기술통계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4점 만점에 사회적 낙인감은 평균 2.07점(SD=.45), 스마트폰 중독은 평균 1.76점(SD=.55), 진로장애는 평균 2.23점(SD=.50)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들의 왜도 절대값(-.019~.206)이 3을 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187~.832)도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왜도	첨도
사회적 낙인감	454	1.00	3.75	2.07	.45	-.019	.464
스마트폰 중독	454	1.00	3.63	1.76	.55	.206	.832
진로장애	454	1.00	3.62	2.23	.50	-.206	-.187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r = .230, p < .01$) 및 진로장애($r = .415, p < .001$)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진로장애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237, p < .001$).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사회적 낙인감	스마트폰 중독	진로장애
사회적 낙인감	1		
스마트폰 중독	.230**	1	
진로장애	.415***	.237***	1

** $p < .01$, *** $p < .001$

4.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선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이론적 논의에 기반한 구조모형(PA: Path Analysis)의 각 변수들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였다. 측정 변수들은 모형 적합도와 신뢰성을 위해 문항결합(Item Parceling)을 통해 실시하였다(Russel, Kahn, Spoth & Altmaier, 1998).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비율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1	1.000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2	1.160	.082	14.101***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3	.857	.066	13.009***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4	.545	.064	8.548***
진로장애	→ 진로장애1	1.000		
진로장애	→ 진로장애2	2.095	.189	11.112***
진로장애	→ 진로장애3	1.138	.121	11.908***
진로장애	→ 진로장애4	.767	.115	6.642***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1	1.000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2	1.179	.068	17.387***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3	.908	.055	16.476***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4	.652	.059	11.049***

** $p < .01$, *** $p < .001$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χ^2 값은 174.033($df=50$, $p < .001$)로 나타났다. NFI는 .913, TLI는 .900, CFI는 .936으로 .90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도 .074(90% 신뢰구간 .062~.086)로 좋은 적합도 조건을 만족한다. 아울러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0이상을 보였으며, 임계비율 역시 모든 문항에서 최소기준 2.58(배병렬, 2007)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측정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5. 구조모형 분석 : 매개효과 분석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인과적 단계접근법(casual step approach)을

실시하였다. 첫째, 총효과 분석으로 매개변수 투입 없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총효과 분석에서 사용된 모형에 매개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경로(a) 그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경로(b)를 평가한다. 매개모형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c')가 총효과(c)보다 낮아지거나 무의미해져야하고, 간접경로인 a와 b, ab가 유의미해야 한다(홍세희, 2005). 셋째,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후 비교검증을 통해 최종 모형을 결정한다(배병렬, 2007; 홍세희, 2005). 이러한 단계에 따라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총효과 분석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매개변수인 진로장애를 투입하지 않고 사회적 낙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총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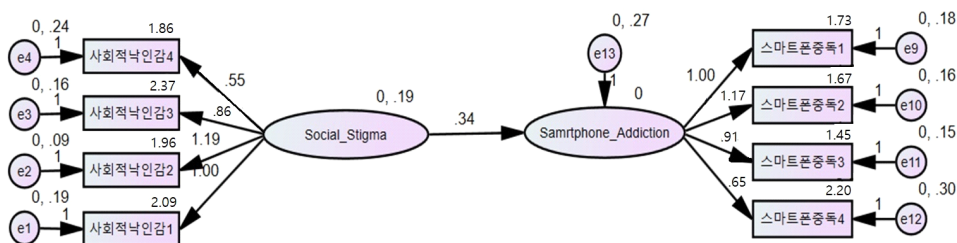


그림 2. 총효과 분석 모형

분석결과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39$, $p<.001$). 즉, 사회적 낙인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총효과 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비율
사회적 낙인감 → 스마트폰 중독	.339	.069	4.902***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1	1.000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2	1.192	.086	13.857***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3	.863	.067	12.884***
사회적 낙인감 → 사회적 낙인감4	.49	.065	8.487***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1	1.000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2	1.172	.068	17.342***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3	.907	.055	16.499***
스마트폰 중독 → 스마트폰 중독4	.679	.059	11.019***

*** p<.001

2) 매개효과 검증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측정 타당성이 표 6과 같이 입증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그림 3과 같이 부분 매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사회적 낙인감이 진로장애를 통해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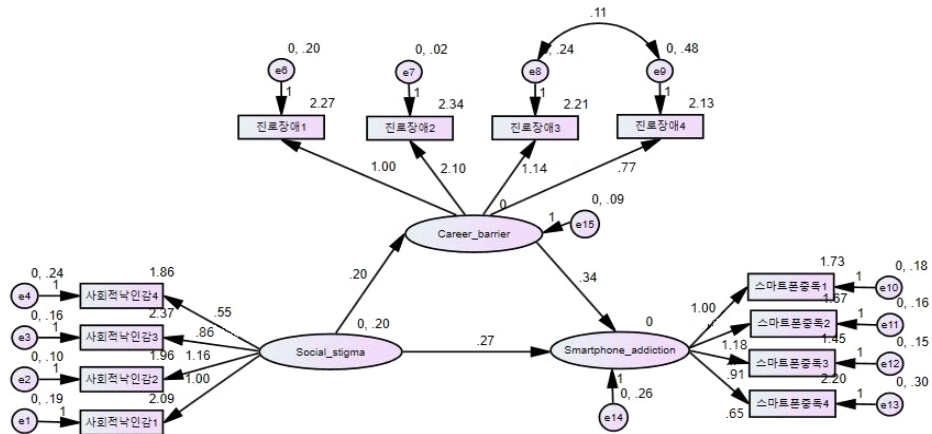


그림 3. 부분 매개효과 연구모형

표 6

부분 매개효과 연구모형 적합도

$\chi^2(df)$	NFI	TLI	CFI	RMSEA
174.033*** (50)	.913	.900	.936	.074(.062~.086)

*** $p < .001$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 경로계수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매개변수인 진로장애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beta = .202, p < .001$)(a), 진로장애는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beta = .338, p < .001$)(b). 한편 매개변수 진로장애의 추가로 인해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 미치는 영향력의 계수 β 값은 .338($p < .001$)에서 .267($p < .001$)로 약 21%($\Delta\beta = .071$) 정도 감소되었고, 직접효과(c)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애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임계비율
사회적 낙인감 → 스마트폰 중독	.267	.222	.069	3.850***
사회적 낙인감 → 진로장애	.202	.283	.041	4.873***
진로장애 → 스마트폰 중독	.338	.200	.091	3.715***

** $p < .01$, *** $p < .001$

3) 경쟁모형 검증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 대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가 부분매개효과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경쟁모형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매개변수 진로장애를 투입하여 검증한 연구모형과 직접효과의 경로계수를 0으로

제약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적합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 적합도 χ^2 비교

구분	$\chi^2(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74.033***(50)	.913	.900	.936	.074(.062~.086)
경쟁모형	188.745***(51)	.906	.891	.929	.077(.066~.056)

*** $p < .001$

분석 결과 경쟁모형의 χ^2 값은 188.745로 연구모형보다 약 14.712 높게 나타났다. 즉 자유도 1에서 χ^2 값의 차이 값이 3.84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간 χ^2 차이 값이 자유도 차이 값과 기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지 않는다면 높은 자유도의 간명한 모형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그러나 모형 간 χ^2 차이 값이 자유도 차이 값에 기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다면 적합도가 더 좋은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선택되었다.

4) Sobel 검증

앞서 검증된 부분매개모형에서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간의 경로(a), 그리고 진로장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경로(b)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매개효과를 a와 b의 곱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해야 확신할 수 있으므로(이상균, 2008)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Sobel 검증치는 2.9658($p < .01$)로 ± 1.96 이상(구미란, 2008)으로 나타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감의 증가는 진로장애를 높이고, 이는 다시 스마트폰 중독의 증가로 이어지는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표 9

Sobel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Sobel 검증치
사회적 낙인감 → 진로장애	.202	.041	2.9658**
진로장애 → 스마트폰 중독	.338	.091	

** $p < .01$

5) 부트스트래핑 검증(SPSS Process Macro Bootstrapping)

Sobel 검증이 가지는 정규성 가정 문제를 해결하고 통계적 검증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분석이다(Hayes,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애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10

Boostrapping 검증 결과

경로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사회적 낙인감→진로장애 →스마트폰 중독	.0872	.0270	.0369	.1415

분석 결과 진로장애 매개효과의 크기는 .0872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 내 하한 값(.0369)과 상한 값(.1415)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활용이 높고, 과의존 경향을 보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적합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낙인감과 같은 부정적 경험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피적인 대처방식으로서 매체에 의존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문진영 외, 2020; 박경애 외, 2009; 임진숙 외, 2005; 장정임, 김성봉, 2015; 한상규, 2019).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그로 인한 차별 경험, 그리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건강 증진 프로그램’에서 우울, 자기 존중감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예측 요인(임미림, 2014; 이신애, 조명선, 2019; 최홍일, 김병년, 2020)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감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과 관련된 주관적 경험을 나누고,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식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결정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의 낙인’은 장기적으로도 ‘자기 낙인’으로 이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Vogel, Bitman, Hammer & Wade, 2013). ‘학업 중단’은 정규 교육과정인 ‘학교’를 떠난 것이지만 학업 자체를 모두 중단한 것은 아님이 드러나고 있고(문성호 외, 2019; 성윤숙, 2016; 윤철경 외, 2018; 이주연, 최지훈, 2019), 이행경로에서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58.3%로 나타나고 있다(윤철경 외, 2016). 따라서 각종 매체의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표현이나 묘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학업 중단을 사유로 각종 시험이나 활동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사회 제도 및 일 경험에서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률은 31.7% (여성가족부, 꿈드림, 2020)에 불과하여 모니터링과 개선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한 ‘학생’이라는 용어로 인한 배제와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지킴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낙인감과 그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과 함께 진로장애 완화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사회적 낙인감은 진로장애를 높이고, 높아진 진로장애는 다시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매개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은 진로 성숙 효과는 물론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원인이 주로 개인에게 있고,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과 달리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적인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로장애 완화를 위한 세부 요인별 개입 방안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먼저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75.5%는 학업과 진로탐색에 관심이 있지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35%에 달하며, 28%는 진로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윤철경 외, 2018)을 고려할 때 진로장애의 주요 요인인 ‘진로정보 부족’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직업 전문학교’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인지도가 낮다(문성호 외, 2019, 이주연, 최지훈, 2019).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고 진로 탐색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멘토링(윤연정, 2018)과 같은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애를 분석하고 현실성이나 발생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평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Brown & Lent, 1996; 손은령, 2001에서 재인용) 또한 진로상담프로그램에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염성 질환으로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진로 관련 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참여 독려와 지지도 필요하다.

일정 금액을 평생학습, 진로개발, 교통비, 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³⁾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애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안과 밖, 지역별 격차 없이 진로장애를 완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자체의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폰의 장점을 활용하여 진로장애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된 집단은 잦은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정보를 잘 찾고,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높은 디지털 사용역량(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이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인지된 유능성이 진로 정보 탐색,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계획 수립 등 진로 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동심 외, 2020). 이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 진로 정보를 찾고 있지만, 이러한 진로활동이 실제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지혜, 문성호, 2020).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대면 학습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려움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대처방식으로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진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유용한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온라인을 활용한 진로 박람회, 최신 정보 등 질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접근성 높은 방법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서 또한 최근 전염성 질환인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학습이 일상화되고 있고,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을 고려할 때 정보와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아동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과도한 사용시간으로 인한 건강, 일상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올바른 사용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교육기본수당’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1개월 이상 등록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춘 만 9세~만 18세의 학교 밖 청소년 250명에게 매달 10~20만원, 1인당 최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며,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1887114902>, 검색일 20.8.25.).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애를 고려하였지만,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별 차이나, 학업 중단 이후의 이행 경로에 따른 차이는 살펴볼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 직업, 무업 등 이행 유형별로 생활의 차이나 스마트폰 의존 경향의 차이(윤철경 외, 2016)를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진로장애가 매개변수로서 갖는 절대적 계수의 수치가 높지 않다. 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추후 연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요인을 학교 안 청소년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은 “학교 안” 청소년이 주된 대상으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중독은 학교 밖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소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독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파악한 사회적 낙인감이나 진로장애 등이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 동질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예방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복순 (2011). **중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1682>에서 2020년 8월 27일 인출.
- 구미란 (2008). **청소년기 우울 증상의 성차에 대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혁 (2017). 낙인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아동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7, 25-43.
- 김동심, 윤미현, 정을호 (2020).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이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51(1), 215-230.
- 김민선 (2019).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을 매개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029-1056
- 김병년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4), 208-217. doi:10.5392/JKCA.2013.13.04.208
- _____ (2018). **청소년기 휴대전화 의존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유형 예측요인과 발달산물: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소현 (2010). 다층성장모형(HLM)을 통한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 변화 추정.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7-31.
-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1-86. doi:10.17854/ffyc.2019.04.58.61
- 명소연, 조진옥 (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 질적연구: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doi:10.35151/kyci.2016.24.2.005
- 문성호, 노지은, 정자윤, 노지혜 (2019).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성남: 성남시청소년재단.
- 문진영, 박주원, 이창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사회적 낙인감에 관한 상호 관계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343-355. doi:10.14400/JDC.2020.18.1.343
-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가족과 개인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41-51. doi:10.17315/kjhp.2009.14.1.003
- 박동진, 이지연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2), 1-26.
- 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doi:10.21509/KJYS.2016.07.23.8.47
- 박봉선 (20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81-106.
- 박재숙 (2011). 농어촌 청소년의 진로위기가 우울 및 회피적 대처를 통해 인터넷 과다 사용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8(8), 21-43.
- 박정미, 김여정, 천성문 (2017). 진로포부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마이스터고 남학생의 경우. **재활심리연구**, 24(4), 603-622.
- 박지원, 문성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3, 5-30. doi:10.17854/ffyc.2020.07.63.5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 청소년 자립 지원 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
-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2020).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이렇게 신청하세요!.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1887114902>에서 2020년 8월 25일 인출.

- 성윤숙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학교 밖 청소년 이행 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연구보고 16-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은령 (2001).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정순, 김봉환 (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사회적 지지 및 자기통제력의 차이. **열린교육**, 17(1), 75-79.
- 송병국, 전주연 (2013).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0(1), 235-264. doi:10.0000/jeccd/2013.20.1.0235
- 신동업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련 비행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한국 범죄심리연구**, 9, 113-137.
- 여성가족부, 꿈드림 (2020).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서울: 여성가족부.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 과정. **청소년학연구**, 21(5), 141-168.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애와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0), 837-851.
- 윤연정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삶 찾기 과정에서 자기대상으로서 멘토와의 관계 경험의 의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713-738. doi:10.22251/jlcci.2018.18.6.713
-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연구보고 16-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보고 2018-19). 서울: 여성가족부.
- 이상균 (2007). 사회복지연구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제12집, 19-36.
- _____ (2008).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한 부모양육행동과 비행친구집단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7, 121-151.
-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9(2), 69-102.
- 이신애, 조명선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

- 학교 · 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15-27. doi:10.35133/kssche.20191231.02
- 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stigma) 개념분석. **류마티스건강학**, 13(1), 53-66.
- 이주연, 정제영 (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이주연, 최지훈 (2019). 2019년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전주: 전라북도 연구원.
- 이창호, 김경희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화명, 김영미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자기개념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549-562. doi:10.5392/JKCA.2017.17.09.549
- 임미림 (2014).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은미 (2003). 중고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인터넷 중독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355-370.
- 임진숙, 강성국, 김성식 (2005).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요인에 한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8(2), 75-83.
- 장정임, 김성봉 (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447-465. doi:10.35151/kyci.2015.23.2.020
- 조춘범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비행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317-345. doi:10.17997/SWRY.55.1.11.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연구보고 2015-50). 서울: 여성가족부.
-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 최홍일, 김병년 (2020).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청소년기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의

- 중단적 인과관계: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학교사회복지**, 50, 255-28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 연구**(NIA IV-RER-11051).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상규 (2019).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6(1), 7-22. doi:10.20496/cpew.2019.6.1.7
- 홍세희 (2005). **사회복지전문가를 위한 연구방법론**(하권). 서울: 중부재단.
-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 황선미, 신현숙 (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229-245.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 614-625. doi:10.1037/0003-066X.59.7.614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Harvey, R.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tigma.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 174-189. doi:10.1080/00224540109600545
-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doi:10.1080/03637750903310360
- Kurzban, R., Leary, M.R. (2001). Evolutionary origins of stigmatization: the functions of social exclusion. *Psychol Bull*, 127(2), 187-208. doi:10.1037/0033-2909.127.2.187
- London, M. (1997). Over 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 Russe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doi:10.1037/0022-0167.45.1.18
- Super, D. E., Savicki, M. L., & Super, C. M.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In D. Brown, & L. Brown(Eds.), *Career-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Swanson, J. L., & Daniels, K. K. (1995).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344-361. doi:10.1016/0001-8791(91)90043-I
- Swanson, J. L., Daniels, K. K., & Tokar, D. M.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doi:10.1177/106907279600400207
- Vogel, D. L., Bitman, R. L., Hammer, J. H., & Wade, N. G. (2013). The longitudinal impact of public stigma on self-stigma: Is stigma internalize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2), 311-316. doi:10.1037/e645732012-001
- Vogel, D. L., Wade, N., & Hackler, A. (2007).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s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40-50. doi:10.1037/0022-0167.54.1.40
- WHO (2001). The world health report 2001. Retrieved August 26, 2020, from <https://www.who.int/whr/2001/chapter1/en/index3.html#dptj>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as it relates to smart-phone addict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Ko, Eunjung* · Kim, Byoungn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st out-of-school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barri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For this purpos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for the second year(2014) of the 'School Drop-Out Adolescents Panel Study',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tigma, smart-phone addiction of Out-of-School adolescents, and career barriers. Second, the notion of social stigma experienced by these adolescent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ates of smart-phone addiction. Third, the notion of career barriers has a partially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social stigma as it relates to smart-phone addiction amongst out-of-school adolesc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number of recommendations and suggestions for reducing social stigma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helping to overcome career barriers was also discussed.

Key Words: out-of-school adolescents, school dropout, smart-phone addiction, social stigma, career barrier

투고일: 2020. 8. 31, 심사일: 2020. 9. 16, 심사완료일: 2020. 10. 12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 Kookmin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Adjunct Professor